"한반도 단층,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포항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 단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10일 낮 12시 53분 36초께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 58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2초 뒤인 12시 53분 38초께 동북동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 한반도(점선) 주변 지각 단층 지도

한반도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반도 내륙과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단층들이 재활성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진을 일으키는 땅의 균열인 단층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동쪽에서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서쪽에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해 한반도의 땅도 조금씩 뒤틀렸다고 밝혔다. 이런 뒤틀림에 땅이 찢겨 단층대가 생겼고, 이 힘이 한반도의 지진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반도 남동부가 위험지역으로 꼽히지만 이 밖에도 수도권과 서해안의 단층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지진 전문가는 "동해와 한반도의 경계부를 따라 굉장히 큰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더 많은 지진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규모 6, 심지어 7이 넘는 강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115회로 집계됐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해는2016년(252회)이며 이어 2017년(223회), 지난해 순이다.

지난해 발생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2월 11일 포항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으로, 이는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발생했던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었다. 규모별로는 4.0대가 1번, 3.0대가 4번, 2.0대가 110번이다.

기상청은 올해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종·부산, AI·로봇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에 '스마트시티' 를 조성한다. 세종시 생활권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 공간으로 만든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에는 로봇과 함께하는 도시생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한다.

13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이 같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범도시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 생활권은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자율차 전용도로 구역(링 형태)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을 활용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서비스를 적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 을 구축할 계획이다. 60MW 규모(2만4,500가구 1년 사용가능)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국내 최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100% 자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수출 사업화해 도시구성부터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을 선단식으로 해외에 수출할 방침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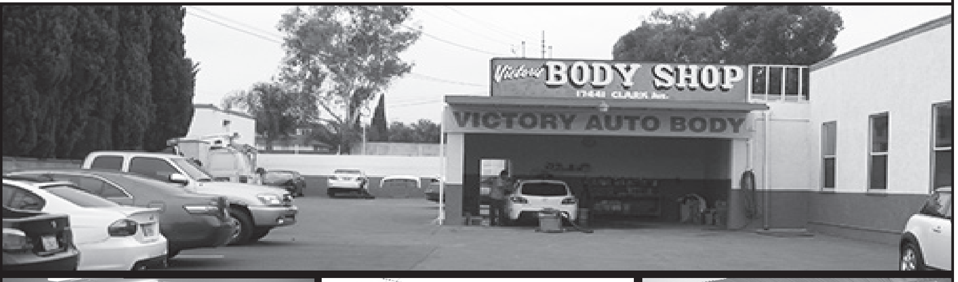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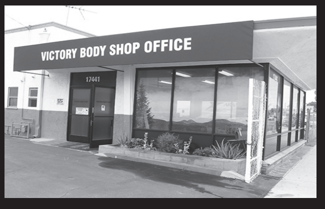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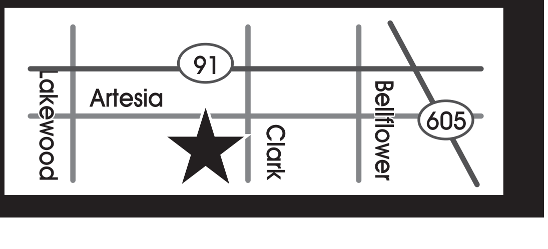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Lease Return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